

## 조선시대의 일본지도와 일본 인식

吳 尙 學\*

### Maps of Japan and the Understanding of Japan in the *Joseon* Dynasty

Sang-Hak Oh\*

**요약** : 조선은 交隣政策을 바탕으로 일본과 교류하면서 일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여 지도를 만들었다. 1403년에 제작된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에는 行基圖 계열의 상세한 일본지도가 수록되어 있고, 1471년 간행된 신숙주의 『海東諸國紀』에는 보다 정교한 일본지도가 실려있다. 이러한 성과는 15세기 대외인식의 개방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컸다. 16세기 이후 주자성리학이 사회운영의 원리로 정착됨에 따라 華夷觀에 입각한 일본 인식이 강해졌다. 이 같은 경향은 일본지도에도 반영되어 민간에서 유행되었던 각종의 여지도책에 수록된 일본지도는 수록된 내용이 간결하고 지형의 윤곽도 많이 왜곡되어 있다. 이러한 흐름과 별도로 통신사의 왕래가 활발해지면서 상세한 일본지도들이 유입되어 제작되었고,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일본에 대한 인식을 提高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주요어 : 일본지도, 일본인식, 화이관, 교린정책, 통신사

**Abstract** : The *Joseon* had made maps of Japan with information that gained during the exchanges with Japan on the basis of the policy of maintaining amicable relations. The elaborate map of Japan similar to *Haenggido*(行基圖) was in *Honilgangniyokdaekukdojido*(Map of integrated lands and regions of historical countries and capitals,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made in 1402, and more accurate map of Japan was found in *Haedongjegukgi*(Chronicle of the countries of the Eastern Sea, 海東諸國紀) compiled by *Sinsukju*(申叔舟) in 1471. These products were due to openness of foreign exchanges in 15th century. After 16th century, understanding of Japan based on China-centric view was intensified, as the confucianism of Chu-tzu planted its roots deeply in *Joseon* society as the social doctrine. These tendency were reflected in the map-making, accordingly many kinds of maps of Japan in the atlas were meager in contents and distorted in shorelines. Apart these currents, as comings and goings of official envoy became brisk, elaborated maps of Japan were imported and copied in the *Joseon* dynasty. Consequently these maps helped the elites of *Joseon* to raise understanding of Japan.

**Key Words** : maps of Japan, the understanding of Japan, China-centric view, the policy of maintaining amicable relations, the official envoys

### 1. 서론

우리나라는 고대부터 다양한 유형의 지도를 제작하여 국가 통치를 비롯한 여러 용도로 활용하였다. 활발했던 지도제작의 흐름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으로 이어졌는데, 조선초기 1402년에는 당시 제작된 세계지도 중에서 뛰어난 지도로 손꼽히는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가 탄생되기도 했다.

국토를 그린 전도는 국내적으로 축적된 경험에

기반하여 제작이 가능하지만,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그린 지도는 국내에서 축적된 경험만으로는 제작될 수 없다. 주변세계와의 교류를 통해 터득한 지식과 정보가 없이, 자국 너머의 異域에 대한 지도를 그려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가와 이들을 넘어선 異域을 그린 조선시대의 지도들은 바로 국가간 문화교류를 통해 이룩된 것이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일본지도는 조선초기부터 이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Curator, National Museum of Korea), ohsanghak@hanmail.net

루어진 일본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제작될 수 있었다. 조선에서는 건국초기부터 왜구문제의 해결이 국가의 중요 현안이었는데, 일본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일본지도가 필요했다. 1401년 일본에 사신으로 갔던 朴敦之는 상세한 최신판 일본지도를 입수하여 돌아왔고,<sup>1)</sup> 1453년(단종 1)에는 琉球國 사신 道安이 일본지도를 조정에 바치기도 했다.<sup>2)</sup> 사행을 통한 일본 지도의 유입은 임진왜란으로 잠시 중단되기도 했으나, 조선 후기 통신사의 왕래가 재개되면서 최신의 일본지도가 조선에 유입되었다. 이러한 일본 지도들은 지식인 사이에서 열람되거나 다시 제작되면서 일본에 대한 인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 글은 현존하는 조선시대의 일본지도를 통해 당시 일본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여러 유형의 일본지도가 조선에 유입된 경로와 조선에서 제작되는 과정을 검토하고, 지도에 그려진 일본의 모습과 내용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인식의 흐름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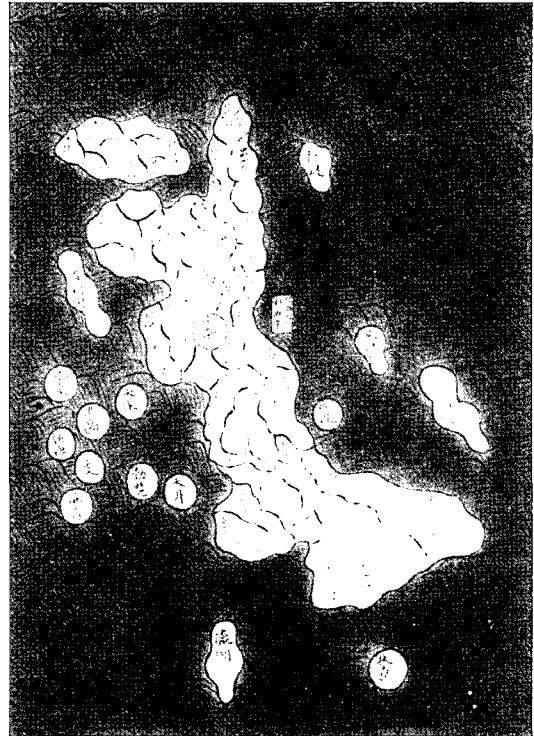


그림 1.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에 수록된 일본지도

## 2. 조선전기의 일본지도와 일본 인식

### 1)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속의 일본지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1402년(태종 2)에 大司成 權近, 左政丞 金士衡, 右政丞 李茂, 檢詳 李尙가 만든 세계지도이다. 중국을 중앙에 배치하고 동쪽에는 조선과 일본, 서쪽으로는 인도·아라비아·유럽·아프리카에 이르는 舊大陸 전역을 포괄하고 있어서, 현존하는 15세기 초의 세계지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 중의 하나로 꼽힌다. 중국의 『聲教廣被圖』와 『混一疆理圖』, 조선의 全圖, 그리고 일본의 지도를 합하여 조선에서 새롭게 편집 제작한 지도로 주변국과의 문화교류를 통해 지도를 제작했던 대표적인 사례이다.<sup>3)</sup>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 수록된 일본지도는 조선에서 제작된 현존의 일본지도로는 가장 오래된 지도이다(그림 1). 이 지도는 1401년 秘書監으로 일본에 갔다 왔던 朴敦之가 가져온 지도로<sup>4)</sup> 추정되었으나, 실록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그 이전 시기에 들여온 일본지도를 기초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吳尙學, 2001, 65). 이러한 사실은 고려말, 조선초기부터 상세한 일본지도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 수록된 일본 지도는 일본의 高僧 行基(668~794)가 만들었다는 行基圖 계열에 속하는 지도이다. 행기는 백제계의 귀화인이라 전해지며, 여러 신도들을 동원하여 독·도랑·다리 등의 토목공사를 담당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행기도는 八道 소속의 各國 경계를 마치 거북의 등처럼 그려 넣은 것이 특징인데, 이는 당시 일본이 처해있던 지방분권적 상황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기도는 이후 여러 차례 전사되면서 후대에 이어졌는데, 현재 仁和寺本, 唐招提寺本 등 몇 종류의 사본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행기도 사본은 慶長年間(1596~1615)에 이르러 印本으로 간행되어 일종의 백과사전인 『拾芥抄』 등에 수록되면서 대표적인 일본 전도로 기능하였다(織田武雄, 1974, 19-24).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일본지도에서는 동북부 지방이 돌출부로 나타나고 九州가 원형이며 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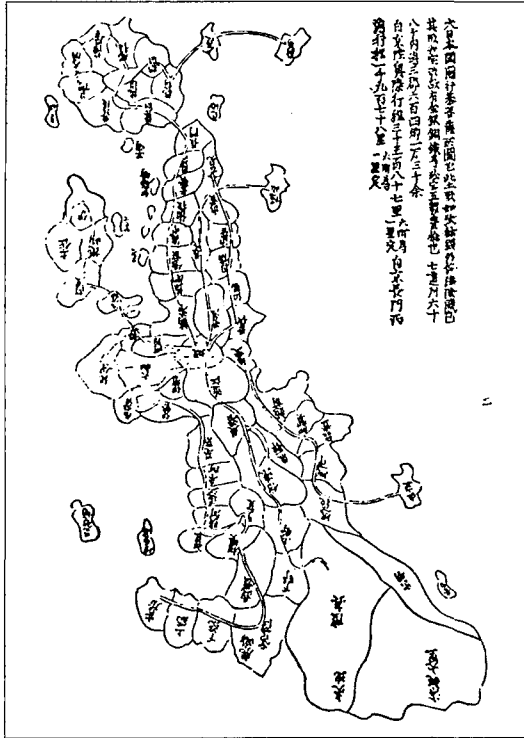


그림 2. 일본의 전통적인 行基圖(拾芥抄慶長活字版所收, 출처 : 國立歷史民俗博物館 1997, 도판 A-2)

國地方이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다. 四國 地方이 本州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四國과 本州 사이에 있는 바다의 채색을 빠뜨렸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일본지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방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본지도가 지닌 방향의 오류는 일본의 行基圖가 서쪽이 지도의 상부이고 동쪽이 하부로 되어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일본을 그려 넣는 과정에서 西上 方位의 행기도를 있는 그대로 北上 方位의 지도에 옮겨 그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위상의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李燦, 1992a).

『拾芥抄』에 수록된 行基圖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일본지도를 보면 외형상 대략 유사함을 알 수 있다(그림 2). 특히 津輕大里, 夷地 등의 지명이 똑같이 수록되어 있는 점을 보면 적어도 이전에 사본으로 존재하던 拾芥抄本 계열의 行基圖를 기초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織田武雄, 1974, 29). 이것은 행기도 계열의 일본지도가 조선초기 또는 그 이전에 한반도에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서는 拾芥抄本과는 다르게 일본 주위에 여러 섬들이 그려져 있는데, 瀛州·扶桑·雁道·三佛齋·羅利國·大身·黑齒·勃海 등이 추가되어 있다. 이러한 지명은 申叔舟가 1471년에 편찬한 『海東諸國紀』의 「海東諸國總圖」에도 수록되어 있다. 또한 拾芥抄本에 그려진 각 지역을 잇는 도로망이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일본지도에서는 빠져 있는 것도 큰 차이로 할 수 있다. '博多大', '鎌鎭' 등의 지명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室町幕府(1336~1603) 시대의 지리적 지식을 반영하고 있는데, '長門'을 '良門'으로 잘못 표기하는 등 전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도 보인다.

그러나 轉寫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명 표기나 방위, 그리고 일부 지역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일본지도는 당시 일본에 존재했던 선진의 지도를 기초 자료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15세기 개방적 대외인식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교린정책에 입각한 일본과의 빈번한 교류를 통해 일본의 최신 정보를 입수하여 전통적인 華夷觀에 매몰되지 않고 일본을 인식하려 했던 초기의 시도로 볼 수 있다.

2) 『海東諸國紀』의 일본지도

『해동제국기』는 1443년(세종 25)에 書狀官으로 일본에 갔다온 申叔舟가 1471년(성종 2) 왕명에 의해 撰進한 것으로 일본의 地勢와 國情, 交聘往來의 연혁, 使臣館待禮接의 節目 등을 기록한 책이다. 책의 앞부분에는 海東諸國總圖, 日本本國之圖, 日本國西海道九州之圖, 日本國一岐島之圖, 日本國對馬島之圖, 琉球國之圖 등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수록된 일본지도는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판본지도로는 가장 오래된 지도이면서, 독립된 일본지도의 판본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이다(그림 3).

『해동제국기』에 수록된 일본지도는 기본적으로 행기도를 따르고 있는데, 이전 시기 朴敦之나 道安이 들여온 일본지도들도 참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京都에 있던 日本國都를 本州의 중앙에 배치시키고 그 동서로 近江國 등의 「國」을 「州」로 표기하고 경계를 그렸는데, 일본의 지방행정구역인 「國」을 조선의 지방 행정조직인 「州」로 대치시켜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구도와 州의 표현은



그림 3. 『海東諸國紀』에 수록된 「海東諸國總圖」

행기도와 유사하나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볼 수 있다.

첫째, 일본국도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鎌倉殿이 원형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州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것은 이전 시기 존재했던 鎌倉幕府가 아니고, 해동제국기가 찬진될 당시 室町幕府와 대립관계에 있었던 古河公方を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해동제국기』의 일본지도가 최신의 정보를 토대로 제작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必地利明, 1996).

둘째, 행기도 계열의 지도에 보이는 道路의 표시가 없고, 대신에 해로의 里程이 상세하다. 즉, 일본의 國都에 이르는 해로와 유구국의 國都에 이르는 해로의 里程이 里數의 표기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행기도 계열을 따르면서도 조선의 현실적 필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는데, 해상을 통한 일본과 유구와의 교류관계가 지도에도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셋째, 동지나해를 비롯한 바다의 섬들이 자세히 그려져 있는데 그 위치나 배열이 실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당시 일본, 유구에 이르는 활발한 해상 왕래의 결과로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북쪽에 지금의 北海島인 夷島가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표현은 「해동제국총도」에서 처음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동제국기』의 본문에서도 '일본

의 북쪽 地界가 흑룡강에서 시작한다'라 하여 남북으로 길게 걸쳐있는 일본의 지세를 인식하고 있다. 夷島の 서쪽에 雁島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해동제국총도」가 일본의 행기도를 기초로 하여 제작되었음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앞서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일본지도와 비교해 보면,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일본지도에서는 四國과 淡路 섬이 本州에 연속된 것 같이 그려져 있으나 「해동제국총도」에서는 이것이 수정되어 있다. 또한 전자에서는 志摩州가 本州의 육지에 접해 있으나 「해동제국총도」에서는 섬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두 지도 모두 本州의 북쪽 바다에 見付島를 그려 넣었는데, 일본의 행기도에서는 모두 本州의 태평양 측에 그려져 있으며 本州의 북측에 그리는 사례는 없다(李燦, 1992b).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지도 제작과정에서 잘못 그려졌다고 보고 있으나 本州 북쪽 지역과 조선과의 활발한 교류로 인해 그려진 실제의 지명이 표기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必地利明, 1996). 결국 『해동제국기』의 일본지도는 기존 행기도 계열의 지도를 기초로 제작되었지만, 당시 최신의 정보가 수록된 훌륭한 地圖라 할 수 있다.

15세기 조선에서 이 같은 훌륭한 일본지도를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침략에 대한 대비라

는 현실적 필요에서 비롯된 바가 컸지만 교린정책에 기초한 교류를 통해 일본의 현실을 이해하려고 했던 대외인식의 개방성에서 기인한 바도 크다. 특히 『해동제국기』를 편찬한 신숙주는 일본을 夷狄視하지 않고 交隣이라는 대일평화정책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일본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대일본 전문가였던 사실과(하우봉, 1989, 17) 이후 『해동제국기』가 이후 대일 교류의 교과서 구실을 했다는 점에서 『해동제국기』의 일본지도는 15세기 일본 인식의 개방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 3. 조선후기의 일본지도와 일본인식

조선전기 200여년간 지속되어온 조선과 일본의 우호관계는 임진왜란으로 인해 단절되고, 일본에 대한 조선인의 감정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본과의 통교가 빨리 재개되었는데, 종전 이후 불과 수년만인 1607년(선조 40)에 국교 회복 교섭이 타결되어 조선에서 回答兼刷還使라는 외교사절이 일본으로 파견되었다. 그리고 1609년(광해군 1)에는 己酉約條이 체결되어 일본 및 대마도와 통교·무역에 관한 기본틀이 마련되었다. 이후 통신사의 파견이 계속되었는데 1811년(순조 11)의 신미 통신사를 끝으로 조선후기에만 총 12번의 통신사 파견이 있었다(李元植, 1997).

조선후기 일본과의 교류 재개는 조선인의 일본 인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통신사 일행에 의해 작성된 많은 견문기 및 사행일기, 일본 지식인과의 筆談과 唱和詩文, 조선으로 유입된 일본 서적 등은 당시 지식인들이 일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sup>5)</sup> 이와 더불어 일본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일본지도가 통신사를 통해 조선에 유입되면서 지식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최신의 외국 문물에 관심이 많았던 여러 실학자들에게 일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이들은 화이관에서 벗어나 일본 문화에 대해 상대주의적 관점을 견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인식의 지평이 항상 확대되는 방향으로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일부 실학자들을 제외한 보통의 지식인들은 조선전기부터 지

녀왔던 華夷觀에 입각하여 일본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임진왜란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으며, 17세기 일본과 교류가 재개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화이관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흐름은 18세기에도 계속 이어져, 한편으로는 일본에 대해 개방적·현실적인 이해로 나아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폐쇄적·관념적 이해가 중층적으로 공존하는 모습을 띠었다.

일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이중성은 조선에서 제작된 일본지도에서도 확인되는데, 대체로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성리학적 화이관이 강하게 투영된 일본지도의 유형이다. 여기에는 조선전기에서 이어져 온 행기도 형태의 일본지도와 姜沆의 『看羊錄』에서 비롯된 일본지도, 민간에서 활용되었던 다양한 輿地圖冊類에 수록된 일본지도 등이 포함된다. 이들 일본지도들은 대부분이 왜곡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수록된 정보도 조선전기 『해동제국기』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통신사행을 통해 입수한 최신의 일본지도를 기초로 제작된 지도들이다. 이러한 지도들은 일부 국가 기관에 의해 관리되기도 했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다시 모사·제작되면서 실학자들에게도 열람되었다. 恭齋 尹斗緒가 그린 日本輿圖, 成大中이 통신사행 때 購得한 일본지도, 元重擧의 『和國志』, 李德懋의 『蜻蛉國志』 등에 수록된 일본지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첫째 유형에 비해 일본의 모습이 훨씬 정확해졌고 수록된 정보도 최신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 두 유형의 일본지도는 지도의 양식상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전자는 천하도·중국·유구·조선지도가 같이 수록된 輿地圖冊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축척의 지도로 수량적으로 후자를 압도한다. 후자의 경우 여지도책이 아닌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량적으로는 매우 적다. 이러한 연유로 지금까지의 일본지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자가 언급되고 후자인 경우 일부에 한해 검토되었다. 이후에서는 두 유형의 일본지도를 정확성이라는 기준에서 왜곡된 형태의 전통적인 일본지도 계열과 최신의 정확한 일본지도 계열로 구분하여 각각의 유형에 담겨있는 일본인식의 일단을 파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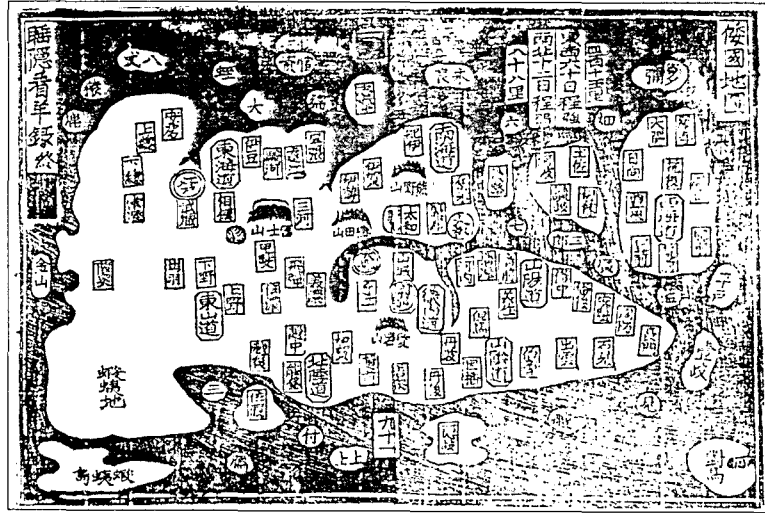


그림 4. 『看羊錄』에 수록된 일본지도

1) 왜곡된 형태의 전통적인 일본지도 유형

(1) 姜沆의 『看羊錄』에 수록된 일본지도

『간양록』은 정유재란 때 일본군에 포로로 잡혀 갔던 睡隱 姜沆(1567~1618)의 기록을 모은 책으로 1656년(효종 7)에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적국에서 당한 포로들의 참상과 그곳에서 보고 들은 실정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고, 전란에 대비해야 할 국내정책까지 언급되어 있다. 책의 말미에는 목판본의 일본지도를 수록하였는데, 지도의 제목은 「倭國地圖」로 표기되어 있다(그림 4). 『간양록』의 본문 중에, '강항이 일본인 佐渡의 부친인 白雲이 갖고 있는 輿圖가 매우 상세하다는 얘기를 듣고 통역인을 시켜 모사하게 했다'라는 기록<sup>6)</sup>으로 보아 「왜국지도」는 이 때 모사된 지도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왜국지도」의 전체적인 윤곽은 조선전기의 대표적인 일본지도인 『해동제국기』의 「해동제국총도」에 비해 매우 왜곡되어 있는데, 긴 일본 열도가 동서로 압축되어 있다. 특히 本州가 뭉툭하게 과장되어 있다. 방위는 「해동제국총도」와는 다르게 남쪽을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하여 조선에서 바라보는 시점으로 그렸다. 八道에 소속된 各州의 경계가 없는 것은 행기도 계열의 지도와 다른 큰 특징이다. 이는 지방분권적으로 인식되던 일본이 완전한 一國으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해동제국총도」에서는 '夷島'라고 표기되었던 북해도는 「蝦蟇島」라는 섬으로 그려져 있다. 이 시기 북해도는 미지의 변방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에서는 대부분 작은 섬으로 또는 섬의 일부 지역만이 그려졌다.<sup>7)</sup>

「왜국지도」에서는 근해의 섬들이 비교적 많이 그려져 있는데, 『해동제국기』의 「해동제국총도」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북쪽 연안에는 三, 付, 上, 上, 巔 등의 명칭이 보이는데, 이는 轉寫 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추정된다. 巔, 付인 경우 「해동제국총도」에서는 巔付島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섬이 전사 과정에서 잘못 분리되어 그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쪽 태평양쪽의 섬들도 「해동제국총도」의 지명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이 지도의 底本은 「해동제국총도」류와는 다른 계열의 것으로 보인다.

『간양록』에 수록된 일본지도는 이후 계속 모사되면서 널리 보급되었다. 『간양록』이 일찍 목판으로 간행되어 많은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만큼 여기에 수록된 일본지도도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 제작되었던 것이다. 특히 임진왜란 때 포로로 잡혀가 탈출했던 魯認(1566-1622)의 문집인 『錦溪集』에도 동일한 「왜국지도」가 목판본으로 수록되어 있다. 또한 영조 연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규장각 소장의 『海東地圖』에도 이 지도가 그대로 모사되어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도첩에 수록되어 있음을 현존하는 지도로 확인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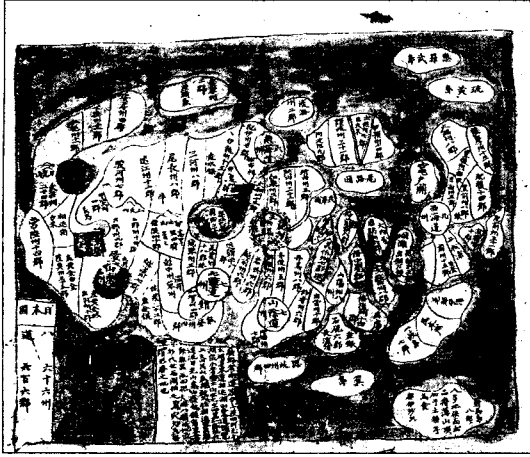


그림 5. 行基圖가 퇴화된 형태의 일본지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2) 行基圖가 퇴화된 일본지도

이 지도는 일본의 전통적인 행기도가 퇴화된 유형이며 대부분 중국, 유구국, 조선지도가 같이 있는 지도첩에 수록되어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지도는 필사본인 경우가 많고 지도에는 통상 「八道六十六州 六百六郡」이라는 기록이 있다. 전통적인 행기도를 바탕으로 제작된 지도이지만 동서로 압축되어 전체적인 형상은 흡사 감자처럼 둥글게 그려져 있다. 『해동제국기』의 일본지도에서 보이던 지금의 北海島인 夷島는 아예 그려져 있지 않다(그림 5).

東海道の 남쪽 부분이 남쪽으로 길게 반도처럼 그려진 점은 이전의 행기도와 다른 모습이다. 방위는 이 시기 조선에서 그려지는 대부분의 일본지도처럼 남쪽을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하였다. 무엇보다 本州의 備前, 備中, 周方, 關長州, 安藝, 備後, 石硯을 섬으로 표시한 오류가 가장 두드러진다. 이는 國의 경계를 강조하여 그려졌던 행기도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오랜 세월이 걸친 전사과정에서 경계선이 그어진 國이 떨어져 나와 섬의 형태로 그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도의 내용은 상당 부분 『해동제국기』의 것과 일치하고 있다. 지도에는 州의 명칭뿐만 아니라 『해동제국기』의 본문에 수록된 내용의 일부가 기재되어 있다. 특히 지역별 産物이 추가되어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전사과정을 거치면서 표기

의 오류도 종종 보이고 있다. 원형의 성벽에 싸여진 山城州에 「王殿, 天皇宮, 畠山殿, 細川殿, 武衛殿, 山谷殿, 京社殿」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부 내륙에는 「東都, 鎌倉殿, 令之江之」라고 기입되어 있다. 「王殿」은 國王殿, 「山谷殿」은 山名殿, 「京社殿」은 京極殿의 誤記임이 『해동제국기』의 일본지도에서 확인되고, 「令之江之」는 「今之江戶」의 오기이다.

또한 「尾戶關」「尾潞關」「兵庫浦」「箕島」 등과 같은 國名 이외의 지명도 『해동제국기』에 수록된 것들이다. 諸國의 郡數 및 특산물, 특기 사항에 해당하는 기사도 『해동제국기』 본문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단지 「有徐市祠」의 주기는 『해동제국기』에 없는데, 紀州新宮의 徐福의 墓에 관심이 높을 때 추가로 기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도의 윤곽은 동서의 길이가 왜곡되어 있어서 『해동제국기』의 지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지도의 제작자는 『해동제국기』를 참고로 하면서도 당시 향간에 돌아다니던 지도를 底本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海野一隆, 1978).

輿地圖冊에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행기도 계열에 속하는 지도도 있는데 金世濂(1593~1646)의 문집에 수록된 일본지도가 그것이다. 김세렴은 1636년 통신사행에서 副使로 선발되어 일본에 다녀왔는데, 그의 문집에는 일본지도와 일본관계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sup>8)</sup> 여기에 수록된 목판본 일본지도는 전형적인 행기도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해동제국기』의 일본지도와는 다르다. 당시 통신사행에서 구득한 행기도 계열의 다른 지도를 바탕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기도 계열에 속하는 일본지도는 조선후기에 제작된 전체 일본지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일본에 대한 인식이 지방분권적 국가보다는 독립된 一國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國의 경계가 세밀하게 그려진 지도가 일반인에게는 오히려 번잡하게 비추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보다는 보다 간략한 형태의 지도가 일본의 지세를 이해하는 데 많이 활용되었다.

### (3) 목판본 輿地圖冊의 일본지도

이 계열에 속하는 지도는 현존하는 일본지도 중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조선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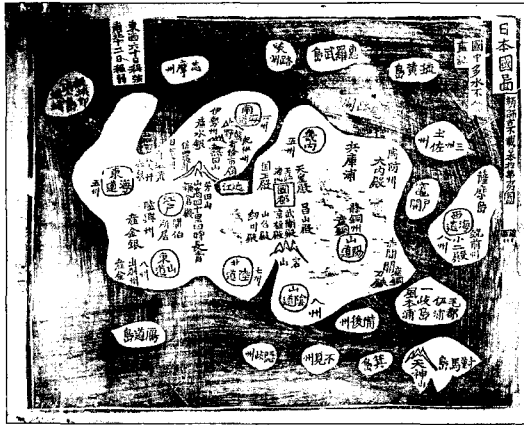


그림 6. 목판본 輿地圖冊에 수록된 일본지도  
(영남대박물관 소장)

민간에서 유행했던 목판본 輿地圖冊(帖)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부 필사본도 존재한다(그림 6). 이 유형에 속하는 일본지도는 여러 판본이 존재하나 대부분 형태나 내용이 유사하다.

지도의 방위는 앞서 언급한 일본지도와 같이 남쪽을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하였다. 일본의 형상은 본주의 경우 타원형에 가까운 정도로 동서로 압축되어 있다. 이 지도는 윤곽과 내용으로 볼 때, 퇴화된 행기도식 계열의 지도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퇴화된 행기도식 지도에서 각 國(州)의 경계를 없앤 다음, 八道와 國都·江戶 등의 주요 지명과 주변의 섬들을 그대로 그려 넣었다. 또한 퇴화된 행기도식 지도에는 없는 蝦蟇島가 그려져 있는데, 그 위치는 東海道の 남쪽으로 실제의 위치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각 지역의 특산물에 이전 지도의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國都나 江戶 등의 중요 지역에는 별도의 주기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富士山으로 추정되는 芳田山에는 산 높이의 수치까지 기재되어 있다. 무엇보다 이 지도의 성격과 관련하여 지도 여백에 있는 주기가 주목을 끈다. 즉, 지도의 여백에 「顏師古不載日本於華夷圖」라고 쓰여져 있는데, 姜沆의 『看羊錄』에 있는 글귀를 수록한 것이다.<sup>9)</sup> 이는 唐의 문인이었던 顏師古가 華夷圖에 일본을 수록하지 않았던 사례를 말한 것으로, 여기에는 일본을 夷狄視하는 華夷觀이 짙게 깔려 있다. 이에 따라 지도의 윤곽도 실제의 모습과 다르게 매우

왜곡되어 있고, 교통로나 지역간의 거리와 같은 실용적인 정보가 거의 수록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유형의 일본지도는 18세기를 거쳐 19세기에도 계속 제작되어 지식인들의 일본인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한편으로 일본과의 교류가 진행되면서 일본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기도 했으나, 전통적인 화이관에 입각한 일본인식도 여전히 계속 이어졌던 것이다.<sup>10)</sup> 결국 왜곡된 형태의 일본지도는 지리적 실재를 객관화하는 실용성보다는 전통적인 이념을 표현하는 관념성을 강하게 반영한 지도라 할 수 있다.

## 2) 최신의 정확한 일본지도 유형

17세기 이후 통신사에 의해 조선에 유입된 일본 지도들은 대부분 낱장에 그려진 대축척 전도이다. 이 지도들은 여지도책에 수록된 일본지도에 비해 축척이 크고, 수록된 내용도 풍부하다. 일부는 당시 국가 기관에서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는 개인에 의해 모사, 제작되어 민간에 유포되었다. 대표적인 실학자였던 李瀾(1681~1763)은 『해동제국기』에 수록된 일본지도나 강항의 『간양록』에 실린 일본지도보다 훨씬 자세한 최신의 지도를 얻어<sup>11)</sup> 일본의 지세를 논했다. 천문, 역법, 수학 등 서양의 과학지식에 뛰어났던 黃胤錫(1729-1791)도 일본지도의 善本이 통신사행을 통해 동래에서 전해졌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sup>12)</sup> 이러한 사례로 볼 때 일본에서 유입된 최신의 일본지도들이 일부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열람되면서 일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 (1) 尹斗緒의 『日本輿圖』

『일본여도』는 조선중기 뛰어난 사대부화가었던 恭齋 尹斗緒(1688~1715)가 그린 것으로 전해지는데(그림 7), 현재 해남의 녹우당에 남아 있다. 윤두서는 고산 윤선도의 증손자로서 당쟁이 극심하던 시기에 관직에의 진출을 포기하고 평생 학문에 전념하였다. 그의 학문은 전통적인 성리학을 바탕으로 실학과 서양문물까지 수용하였으며, 천문·지리·의학·수학·음악·서화 등 다방면에 능통하였다(李乃沃, 1993, 30). 이러한 박학적인 학풍은 李潛, 李淑, 李瀾 등 성호 집안과의 교류에 의해 심화될 수 있었다(李英淑, 1988). 특히 지리에도 관심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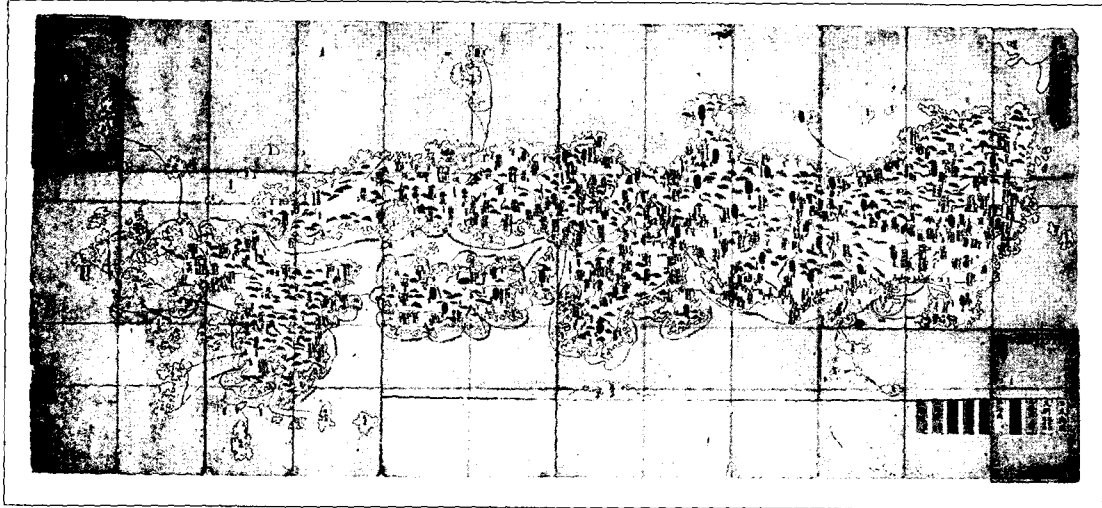


그림 7. 尹斗緒가 그린 일본지도(해남 녹우당 소장)



그림 8. 『本朝圖鑑綱目』을 증보한 『日本海山潮陸圖』(출처 : 歷史民俗博物館 1997, 도판 D-1)

기울여 일찍이 중국지도를 탐구하였고, 조선의 산천에 대해 연구를 거듭하여 지도를 직접 제작하기도 했다(李乙浩, 1993, 3).<sup>13)</sup>

『일본여도』는 낱장으로 제작된 독립된 일본지도로서 채색 필사본이다.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여 일본의 모습을 정교하게 그린 지도이다. 이 지도가 그려지게 된 경위에 대해 확실한 기록은 없고, 해남 녹우당의 家傳에 의하면 숙종 때 첩자 48명을 일본에 보내어 그려온 지도라 한다.<sup>14)</sup> 정약용은 이 지도를 열람하고 소감을 피력한 바 있는데, 지도의 너비는 1丈이고 지방의 고을과 驛站, 부속 도서, 해안과 육지의 원근, 해로상의 지름길 등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고 지적했다.<sup>15)</sup> 그러나 이 지도의 유

래에 관한 확실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정약용도 임진왜란 때 왜인의 패전터에서 얻은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이익이 열람했던 일본지도도 이익과 윤두서의 친분을 고려할 때 『일본여도』일 가능성이 높지만 지도의 출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렇다면 윤두서는 이전 시기 『해동제국기』의 일본지도나 강항의 『왜국지도』보다 훨씬 정교한 지도를 어떻게 제작했을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게 풀린다. 『일본여도』와 외형과 내용이 동일한 지도가 일본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에도시대에 민간에서 간행되어 널리 보급되었던 『本朝圖鑑綱目』이라는 지도이다(그림 8).

일본에서는 17세기 전반에 이르러 지도 인쇄의 성행으로 각종의 지도가 민간에서 활발하게 간행되었다. 『본조도감강목』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서 간행되었는데, 1687년 流宣이 浮世繪의 목판기술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채색한 지도이다. 정확성보다는 실용성을 목적에 둔 것으로 大名, 城下, 石高를 비롯하여 街道, 宿場, 航路와 國郡, 里程 등의 일람표가 수록되어 있다. 이를 증보한 것으로 1691년에는 江戸에서 『日本海山潮陸圖』(그림 8 참조)라는 대형의 지도가 간행되었는데, 이러한 流宣圖 계열의 지도는 풍부한 내용과 화려한 장식으로 민간에서 100년 가까이 인기를 끌었던 대표적인 지도였다(織田武雄, 1974, 78).

따라서 일본에 갔던 통신사들이 이들 지도를 구하여 조선으로 들여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시 일본에서는 상업적 목적의 지도제작이 성행하여 민간에서의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도를 매개로 하는 정보의 유통이 조선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신사일행은 이 지도를 쉽게 입수할 수 있었고, 귀국 이후 윤두서와 같은 뛰어난 화가에 의해 모사되어 전해 내려온 것이다.<sup>16)</sup> 실제로 윤두서의 『일본여도』와 『본조도감강목』을 비교해 보면 지도 여백의 國郡·里程에 관한 일람표가 누락된 것을 제외하면 지도의 윤곽이나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일본여도』에는 各道 소속의 州들이 노란색의 경계선으로 그려져 있고 州에 소속된 郡數를 옆에 표기하였다. 이 지도에는 해로와 육로 등의 교통로가 매우 자세히 그려져 있는데, 지역간의 거리도 표기되어 있다. 또한 지역별로 大名의 이름과 石高가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본조도감강목』의 것을 그대로 수록한 것이다. 그러나 윤선도가 그린 『일본여도』에도 조선 특유의 지도학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일본여도』에서는 各道別로 색채를 다르게 하여 구분하였는데, 八道の 색채를 전통적인 오방색에 따라 배치한 것이다. 즉, 동쪽은 청색, 서쪽은 흰색, 남쪽은 적색, 북쪽은 검은색, 중앙은 황색을 사용하여 방위에 따른 전통색을 사용하였다.

『일본여도』에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는 노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각 지역의 사정이 비교적 상세히 수록되어 있어서 여러 학자들에게 일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산

정약용은 이 지도를 직접 베껴 일본을 탐구하는데 활용하기도 했는데,<sup>17)</sup>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화이관에서 벗어나 일본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선구적인 지도라 할 수 있다.

## (2) 『各國圖』에 수록된 일본지도

통신사에 의한 일본지도의 유입에서 주목을 끄는 지도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각국도』이다(그림 9). 『각국도』는 天地全圖, 天下全圖를 비롯하여 燕京城市圖, 西北彼我交界圖, 日本圖 그리고 중국 各省의 지도가 다양하게 수록된 지도첩이다. 이 지도첩에는 총 3종류의 일본지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成大中이 통신사로 갔을 때 구입한 지도를 비롯하여 2종의 지도가 더 있다. 이 중에서 성대중의 지도는 뒤에서 상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나머지 두 종의 일본지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의 일본지도에는 「籌司本 姜哨官彝中摹」이라는 글귀가 있는데, 籌司는 비변사를 말한다. 따라서 비변사의 소장본을 哨官인 姜彝中이 모사한 것이다. 강이중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무관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지도는 군영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도의 윤곽은 앞서 윤두서가 그린 『일본여도』와 달리 本州의 東山道가 북쪽으로 올라가 實在의 모습과 유사하다. 일본에서 목판으로 간행되어 대중적으로 널리 유포되었던 『本朝圖鑑綱目』과 같은 지도는 판형에 일본의 모습을 맞추다 보니 전반적으로 남북이 압축된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 지도에서는 이러한 왜곡된 형태가 수정되어 본래



그림 9. 비변사 소장본의 일본지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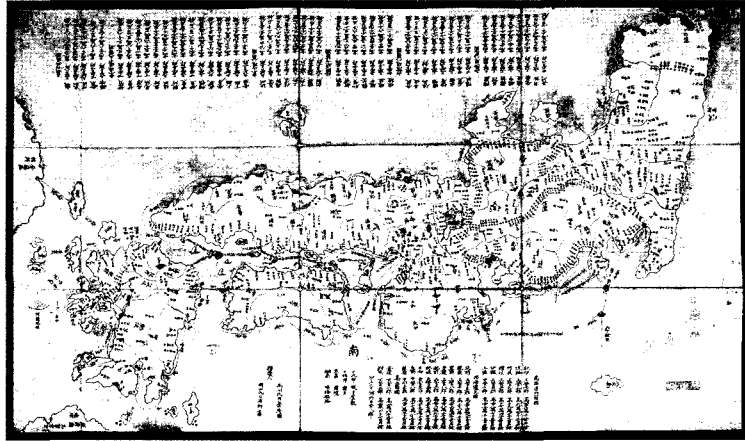


그림 10. 성대중이 일본에서 가져온 일본지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의 모습에 더 가깝다. 지도에는 八道에 소속된 행정구역인 國(州)이 색채를 달리하여 그려졌고, 國 내부의 郡도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도로망과 같은 실용적 정보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 대신에 대마도 근처에는 부산에서 下關에 이르는 노선이 기재되어 있다.

『각국도』에 수록된 또 하나의 지도는 소축척의 일본지도로 道別로 國과 그 경계만을 그렸다. 소략한 형태의 일본지도이나 해안선의 윤곽은 비변사 소장본보다 정교하게 그려져 있다. 이러한 해안선의 윤곽은 에도시대 官撰地圖 제작의 성과가 반영된 것이다. 지도의 상단 여백에는 각 도별로 소속 國名이 기재되어 있다. 일종의 행정구역도에 해당하는 지도로 도별 國名을 제외하면 수록된 정보가 거의 없다. 소략한 지도이면서 실제의 일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 앞서 검토한 관념적 성격의 일본지도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 (3) 成大中이 구득한 일본지도

『각국도』에 수록된 일본지도로 지도의 이면에 「成渭原大中通信行購來本」이라고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어서 통신사행과 관련하여 유입된 것이 분명하다(그림 10). 성대중(1732~1812)은 象數學의 인학풍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북학사상의 형성에 일익을 담당했던 학자였다. 1763년 통신사 趙儼을 수행하여 元重擧와 함께 晝記의 자적으로 일본에 갔다 왔고, 이덕무·박지원·홍대용 등과 같은 북학파 학자들과 교류하기도 했다.

이 지도의 조선유입에 대해서는 趙儼의 통신사 일기인 『海槎日記』에서 단서를 찾아 볼 수 있다. 즉, 통신사 일행이 대마도에 머무를 때, 대마도의 지도와 일본지도를 구득하여 都訓導 卞璞에게 모사하게 했다는 기록<sup>18)</sup>이 있다. 『각국도』첩에는 상세한 대마도 지도도 실려 있어서 「成大中購來本」은 바로 이 때 모사한 지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사일기』의 뒤편에 있는 지도와 관련된 기록으로 볼 때, 대마도에서 모사한 지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통신사 일행이 大阪에 도착했을 때 일본지도 개정본을 얻어 晝師 金有聲으로 하여금 그리게 하였는데, 소위 大地圖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번잡하기 때문에 그만두었다'<sup>19)</sup>고 한다. 「成大중구래본」은 바로 이 때 얻은 소위 大地圖라고 하는 개정일본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成大中購來本」의 일본지도는 가로 115cm, 세로 66cm의 당시로는 대축척에 해당하는 지도로 채색으로 그려져 있다. 지도의 윤곽은 이전 시기의 지도에 비해 매우 상세하다. 팔도(八道)의 각 國(國)이 표시되어 있고, 해로와 육로의 교통로가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 서쪽 나가사키 근처에는 이곳에서 교역을 하던 아란타(阿蘭陀, 네덜란드)와 중국의 상선도 보이고 있다. 지도의 여백에는 각 지역별로 법정 표준수확고인 고쿠다카(石高)를 수록하였다. 당시 최신의 정보가 이 지도에 수록된 셈이다.<sup>20)</sup>

이 지도의 원본이 일본에 현존하고 있는데, 『改正大日本圓備圖』, 『改正大日本備圖』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다(그림 11). 1703년경 大阪에서 江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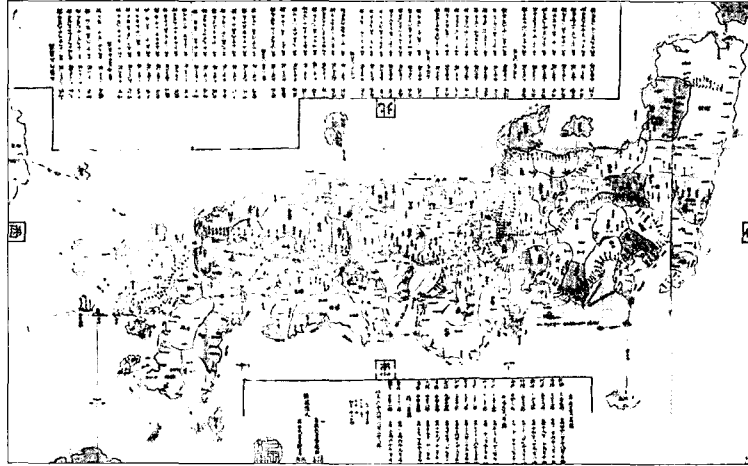


그림 11. 『改正大日本圖』(출처: 國立歷史民俗博物館, 1997, 도판D-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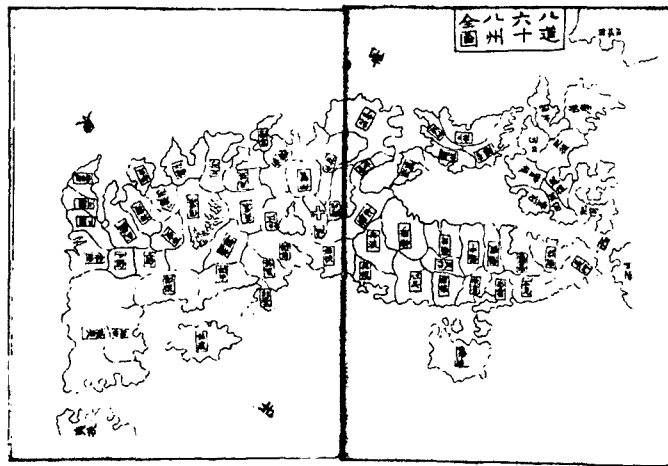


그림 12. 李德懋의 『寰宇圖』에 수록된 일본지도

『日本海山潮陸圖』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도로 반세기에 걸쳐 계속 간행되면서 대중적으로 널리 유포되었다. 특히 이 지도는 화려한 修飾이 있는 流宣圖 계열에서 보이는 왜곡된 지형이 수정되고, 육로·수로와 각지의 역원이 상세하게 표시되었다. 특히 해안선과 해로의 표시, 四國의 윤곽이 정확해졌다. 당시 해운업자가 많았던 大阪에서 출판된 대표적인 일본지도였다.

『개정대일본원비도』는 조선에서도 다시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실학자들의 저술에 실림으로써 많은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즉, 통신사 일행으로 같이 갔던 元重擧의 『和國志』와 상대중,

원중거 등과 교분이 두터웠던 李德懋의 『寰宇圖』에도 똑같이 실려 있다(그림 12). 원중거의 『화국지』는 일본에 대한 본격적인 지리서로 책의 맨 앞에 『개정대일본원비도』가 채색으로 필사되어 있다(배우성, 1999). 그러나 여기에 수록된 지도는 원도와 동일한 것은 아니고 책에 수록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분리된 것인데, 맨 앞의 전도를 합하여 총 12매의 지도가 있다. 이 지도는 이덕무의 『청령국지』에 그대로 수록되었는데, 이후 1795년(정조 19)에 간행된 『靑莊館全書』에 실려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열람되었다. 당시 인쇄된 일본지도로는 가장 상세한 지도였는데, 『청령국지』에 실린 일본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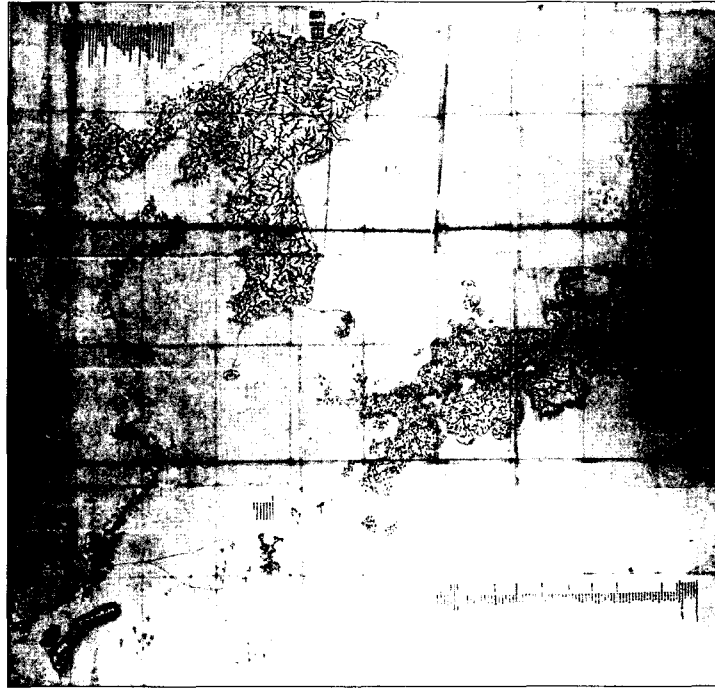


그림 13. 규장각 소장 『海東三國圖』

한 지식과 더불어 일본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더 나아가 일본을 夷狄視하는 전통적인 화이관에서 벗어나 일본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sup>21)</sup>

#### (4) 『海東三國圖』에 그려진 일본지도

최신의 정보를 활용한 대축척 일본지도의 백미는 『해동삼국도(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에 그려진 일본지도이다(그림 13). 지도의 표지에는 「日本朝鮮琉球全圖」라 되어 있고, 한반도를 비롯하여 중국의 만주 지역과 북경, 동부 연해지역, 대만의 서쪽 해안, 유구, 일본 등이 그려져 있다. 세로 248cm 가로 264cm의 대형 지도로 일본의 모습이 매우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조선의 한양에서 사방 각지에 이르는 육로와 해로가 자세히 표현되어 있고, 동해에는 百里尺도 그려져 있다.

지도의 하단에는 일본에 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는데, 도별 각 주의 명칭과 주에 소속된 각 군의 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끝 부분에 薩摩州에서 浙江省까지, 대마도에서 부산포까지의 거리와 항해 일수, 그리고 薩摩州에서 유구, 대만, 安南, 呂宋國

에 이르는 거리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과는 달리 일본의 북극고도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배우성, 1999b, 193).

이 지도의 제작자나 제작시기가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단편적인 기록이나 지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수정·증보했던 鄭厚祚(1758~1793)가 정조 연간에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정후조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東國八路分地圖(성신여대 소장)』에는 원래 「四裔圖」라는 지도가 수록되어 있었다. 지도첩의 뒤에 있는 범례의 기록으로 볼 때, 「사예도」는 『해동삼국도』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다(吳尚學, 1994, 145). 또한 백리척을 사용하여 지도를 그린 점, 지도 상단에 중국 주요지역의 북극고도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은 『해동삼국도』가 『四裔志』를 저술한 鄭厚祚가 그린 지도일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해동삼국도』의 일본지도는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시대의 일본지도로는 가장 상세하고 정교한 지도이다. 해안선의 윤곽이 보다 세밀해졌고, 육로와 해로가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현존하는 일본의 고지도 중에서 이와 동일한 윤곽을 지닌 지도를 찾

아보기 힘들고 일본의 『和漢三才圖會』의 지도를 토대로 「사예도」를 제작했다는 『동국팔로분지도』의 범례 기록으로 볼 때<sup>23)</sup>,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편집·제작한 지도로 판단된다. 일본지도의 전체적인 윤곽은 『화한삼재도회』의 지도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수록된 내용의 상당부분이 서로 일치하고 있다. 통신사를 통해 들여온 일본지도들이 대부분 모사·제작되었던 사실과 비교해 볼 때, 이는 일본지도 제작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이 지도가 지니는 가장 큰 특징은 정교함과 내용의 풍부함을 넘어서 주변 지역을 고려한 일본의 상대적인 위치가 매우 정확해졌다는 사실이다. 이전 시기의 지도에서는 대부분 일본이 조선의 남쪽 또는 동남쪽에 위치해 있고 조선보다 면적이 작게 그려져 있다. 그러나 『해동삼국도』에서는 이러한 오류가 시정되어 本州의 북단 부분이 거의 함경도의 위도와 같게 그려져 있고, 경도상에서도 한반도의 중심에서 동쪽으로 이동되어 있다. 또한 국토의 면적에서도 조선보다 훨씬 크게 그려 實在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중국에서 들여온 서화서와 서구식 세계지도, 경위도를 이용한 땅의 측량법(測天法), 『화한삼재도회』와 같은 최신의 일본 서적과 지도 등을 통해 가능했다.

지도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일본 인식에서의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을 夷狄視하는 전통적인 화이관에서는 일본을 왜소한 나라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 조선보다 작게 표현되었고, 심지어는 유구국보다도 작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해동삼국도』에서는 전통적인 화이관에서 벗어나 일본을 조선보다 훨씬 크게 그림으로써 객관적으로 이해하려 했다. 東海道의 북단이 조선의 함경도와 같은 위도에 그려 남북의 길이가 한반도의 두 배 정도로 표현된 사실은 전통적인 화이관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것이었다. 이제 일본은 夷狄의 나라가 아니라 조선과 동등하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지닌 나라로 인식하게 되었다. 폐쇄적인 화이관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대외인식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해동삼국도』는 지도의 간단한 윤곽과 주요 지명만이 표기되어 책에 수록되기도 했다. 19세기 중반에 저술된 것으로 보이는 『山海諸國』(국립

중앙도서관 소장)에 「中原朝鮮日本交界圖」라는 제하에 그려진 지도가 그것이다. 『산해제국』에는 地球圖說을 비롯한 세계의 지리에 대한 기술과 山經表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세계지리를 소개하는 부분에 이 지도가 있다. 『해동삼국도』가 동아시아 지리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도이기 때문에 후대에도 주변세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데 계속 활용되었던 것이다.

## 4. 결론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왜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에 대한 정보 수집에 심혈을 기울였다. 사행을 통해 최신의 일본지도를 구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제작·관리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402년의 『混 疆理歷代國都之圖』와 1471년 신숙주의 『海東諸國紀』에는 이 시기 최고의 일본지도가 수록될 수 있었다. 15세기의 이런 성과는 交隣政策에 기초한 대외인식의 개방적 태도에서 기인하는 바가 컸다. 전통적인 華夷觀이라는 명분론에서 벗어나 객관적 현실을 인식하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16세기를 거치면서 주자성리학이 조선 사회의 운영원리로 정착되었는데, 이에 따라 대외인식도 점차 성리학적 화이관에 기초를 두게 되었다. 특히 임진왜란의 경험은 일본에 대한 조선인의 감정을 극도로 악화시켰고, 이에 따라 일본을 夷狄視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졌다. 17세기 초반 일본과의 교류가 재개되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화이관에 기초한 일본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이 시기 제작된 일본 지도에도 반영되었는데 강항의 『看羊錄』에 수록된 일본지도가 대표적이다. 이 지도는 전통적인 화이관에 입각하여 그려진 것으로 이후 많은 학자들의 일본 인식에 영향을 주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필사되면서 후대에 전해졌다. 이외에도 行基圖가 퇴화된 형태의 일본 지도와 왜곡된 형태의 일본 지도가 여지도첩에 수록되어 민간의 지식인들에 유포되었다. 특히 왜곡된 형태의 일본지도는 목판본으로도 여러 번 간행되었는데 조선전기의 일본지도에 훨씬 못 미치는 소략한 형태의 지도로, 화이관에 입각한 일본 인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18세기에 접어들어 동아시아 정세가 안정되어감에 따라, 통신사를 통한 일본과의 교류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일본에서의 다양한 견문 기록, 조선에 유입된 많은 일본서적 등은 일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통신사행을 통해 최신의 대륙적 일본 지도를 입수하여 다시 제작하기도 했다. 윤두서가 제작한 『일본여도』, 성대중이 구득한 일본 지도 등은 당시 일본에서 유행했던 최신의 지도들이었다. 또한 일본에서 들여온 이와 같은 지도와 지리서 등을 토대로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편집한 것으로 보이는 일본 지도도 있는데, 『해동삼국도』의 일본지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성과들은 지속적인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전통적인 화이관에서 벗어나 일본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려했던 노력의 결과이다. 夷狄視되던 일본이 독자적인 문화를 지닌 동등한 국가로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일본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고 그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전통적인 화이관에 기초한 일본 인식도 여전히 지속되었다. 특히 통신사를 통한 교류가 단절되는 19세기 전반부터는 일본에 대한 관심이 더욱 퇴조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초기 『해동제국기』의 일본지도보다 훨씬 퇴화하고 왜곡된 형태의 지도가 일본의 모습으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1876년 일본에 의한 타율적 문호개방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 註

- 1) 『세종실록』 권80, 세종 20년 2월 19일.
- 2) 『단종실록』 권7, 단종 10년 7월 4일.
- 3) 『훈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원본은 현존하지 않고 15세기 이후 제작된 사본 네 종류가 일본에 남아 있다. 각각의 사본마다 일본의 모습이 차이가 있는데, 이 글에서는 제작시기가 가장 이른 일본의 龍谷大本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 4)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7월 11일.
- 5) 당시 실학자들이 인용하고 있는 일본 서적은 35종이나 된다(하우봉, 1989, 204).
- 6) 姜沆, 『看羊錄』 「賊中奉疎」
- 7) 일본 역사에서 北海島는 18세기 후반까지 국가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변방으로 남아 있어서 인식의 수준도 매우 낮았다. 18세기 후반 일본의 막부는 러시아의 동방

진출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北海島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北海島의 지도도 이 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그려지기 시작했다.

- 8) 金世濂, 『東溟集』, 권10.
- 9) 姜沆, 『看羊錄』 「告倭人檄」
- 10) 이러한 경향은 일본지도와 같이 수록된 琉球國圖에서도 볼 수 있다. 유구국은 1609년 사쓰마번에 종속되면서 독립 왕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지만 지도에서는 전기의 『해동제국기』에서처럼 여전히 독립 왕국으로서 표현되고 있다.
- 11) 李瀾, 『星湖僊說』 제14권, 人事門, 倭寇始末
- 12) 黃胤錫, 『願齋亂藁』 권14, 庚寅年(1770) 五月初四日.
- 13) 녹우당에 소장된 『東國輿地圖』가 윤두서가 제작한 조선 전도이다. 이 지도는 조선전기에 만들어진 전도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해안의 포구, 도로망 등이 매우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 14) 이러한 家傳에 토대를 두고 『일본여도』(김완식 저, 1998, 중앙M&B)라는 소설이 창작되기도 했다. 그러나 소설의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 15) 丁若鏞, 『輿猶堂全書』, 제1책, 詩文集, 書, 「上仲氏」.
- 16) 윤두서는 말년 1713년 해남에 내려와 은거하기 전까지 서울에서 살았다. 이로 인해 최신의 외국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그는 西學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었다. 아울러 그의 실학적이면서 박학한 학풍으로 미뤄볼 때 통신사를 통해 들여온 최신의 일본지도도 섭렵했을 것으로 보인다.
- 17) 丁若鏞, 『輿猶堂全書』 제1책, 詩文集, 書, 「上仲氏」
- 18) 趙曦, 『海槎日記』 癸未年 十月 十日. 변박은 동래 사람으로 문자와 그림에 뛰어났는데, 당시 사행에는 騎將 자격으로 동행했다. 또한 그는 일종의 그림 지도인 『倭館圖』를 그리기도 했는데,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남아 있다.
- 19) 趙曦, 『海槎日記』, 甲申年, 正月 二十四日.
- 20) 현재 이와 동일한 지도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지도의 제목은 「日本地圖(청구기호 K2-4617)」라고 되어 있고, 「朝鮮使者用」이라는 주기가 있어서 통신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21) 『개정대일본원비도』의 활용은 19세기에 이어졌다. 19세기 대표적인 실학자로 평가되는 최한기는 1857년 『地球典要』라는 세계지리서를 저술했는데, 여기에 『개정대일본원비도』를 축소하여 수록하였다. 일본에 관한 기록은 1719년 통신사의 製述官으로 일본에 갔던 申維翰의 『海遊錄』에서 채록한 것이다(崔漢綺, 『地球典要』 권1, 凡例 및 권13 諸國圖 참조).
- 22) 원문에는 『倭漢三才圖會』라 표기되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화한삼재도회』에도 표기에는 『왜한삼재도회』라 기재되어 있다.

## 文獻

배우성, 1999a, “정조시대 동아시아 인식의 새로운 경향,” 『韓國學報』 94, 92-125.

- \_\_\_\_\_, 1999b, “정조시대 동아시아 인식과 <해동삼국도>,”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정옥자 외), 들베개, 167-200.
- 吳尙學, 1994, “鄭尙驥의 東國地圖에 관한 연구 -제작과정과 사본들의 계보를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24호, 133-155.
- \_\_\_\_\_, 2001, 朝鮮時代の 世界地圖와 世界 認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李乃沃, 1993, “恭齋 尹斗緒의 학문,” 미술자료 51호, 국립중앙박물관, 23-37.
- 李英淑, 1988, “尹斗緒의 繪畫世界,” 미술사연구 창간호, 65-94.
- 李元植, 1997, “通信使記錄을 통해 본 對日本認識,” 국사관논총 76, 국사편찬위원회, 277-312.
- 李 燦, 1992a, “朝鮮前期의 世界地圖,” 학술원논문집 제31집, 165-178.
- 李 燦, 1992b, “『海東諸國紀』의 日本 및 琉球國地圖,” 문화역사지리 제4호, 1-8.
- 河宇鳳, 1989, 朝鮮後期實學者의 日本觀研究, 一志社.
- 各國圖,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古2802-1)
- 錦溪集, 魯認,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한국문집총간 95).
- 東溟集, 金世濂,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한국문집총간 71).
- 明南樓叢書, 崔漢綺, 여강출판사 영인본(1986).
- 山海諸國,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古朝60-16).
- 星湖僊說, 李瀾, 민족문화추진회 국역본(1982).
- 睡隱看羊錄, 姜沆,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신수 15541).
- 與猶堂全書, 丁若鏞, 경인문화사 영인본(1970).
- 頤齋亂藁, 黃胤錫,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탈초본(1994~).
-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서울시스템, 국역 CD).
- 靑莊館全書, 李德懋, 민족문화추진회 국역본(1980).
- 和國志, 元重學, 아세아문화사 영인본(1990).
- 海槎日記, 趙曦, 국역해행총재, 민족문화추진회(1977).
- 國立歷史民俗博物館, 1997, 秋岡コレクション 日本の古地圖.
- 藤田元春, 1932, 日本地理學史, 刀江書院.
- 心地利明, 1996, 繪地圖の世界像, 岩波新書.
- 織田武雄, 1974, 地圖の歴史-日本篇, 講談社.
- 海野一隆, 1978, “朝鮮李朝時代に流行した地圖帳 -天理圖書館所藏本を中心として-,” 피브리야 70, 1-28.

최초투고일 02. 12. 08

최종접수일 03. 03. 04